

“내 활동은 100점 만점에 60점”

초대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7월 25일 퇴임... “군종교구 체계 확립이 가장 큰 성과”

“고무신이 닳을 때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뛰었습니다. 아쉽지만 훌륭한 후임 교구장이 오셔서 군종교구를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군종교구장으로 4년간 군종교구를 진두지휘해 온 일면 스님(사진)이 7월 25일 퇴임을 앞두고 6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국방부 호국원행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동안 스님은 군포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관심을 모았던 총무원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는 그러지만 종단에 훌륭한 분들이 많다”며 말을 아꼈고, 재임의사에 대해서는 “처음 군종교구를 맡을 당시 재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고, 모든 열정을 쏟은 만큼 더 이상 미련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거취에 대해 “우선 불암사로 돌아갈 계획”이라며 “99%가 준비돼도 1%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한다. 인연 닿는 대로 어떤 자리에서든 열심히 할 생각”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지난 활동을 스스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과락을 겨우 면한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라며 “취임하며 미련 없이 일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크게 내세울 건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종단의 40년 숙원인 군포교 진출로 교구출범 이후 체계가 확립되고 종단 정체성이 강화된 것이 임기 내 가장 큰 성과”라며 “군종교구가 짧은 시간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종단의 적극적 지원과 현장 군법사의 원력, 그리고 우리 장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불자님들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일선 군법사와의 관계 정립과 군포교 기반확대에 앞장

2005년 7월 25일 초대 군종교구장으로 부임한 이후 당면한 과제는 40년간 교구 없이 유지했던 일선 군법사와의 관계 정립과 군포교 기반확대였다. 군종교구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차장제도를 도입했으며, 중무행정 체계화를 꾀했다. 군승 제제 개편에도 들어갔다. 예비군승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군승 수급에 군종교구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지속적 인 재교육과 더불어 우수 군승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혜택을 부여하고, ‘군승의날’ 개최 및 수련회 등을 통해 단합을 유도했다. 군법사 체계 확립으로 30여 년간 미달됐던 군승 수급도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군법사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취임 초기 군법사들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힌 일면 스님은 “선배 군법사들이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수련회 등 행사에 전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선배 군법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후배들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군법사 일동은 5월 군승하계수련회에서 일면 스님 재임 요청을 결의하는 등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09 목표 10만 명 수계 달성 가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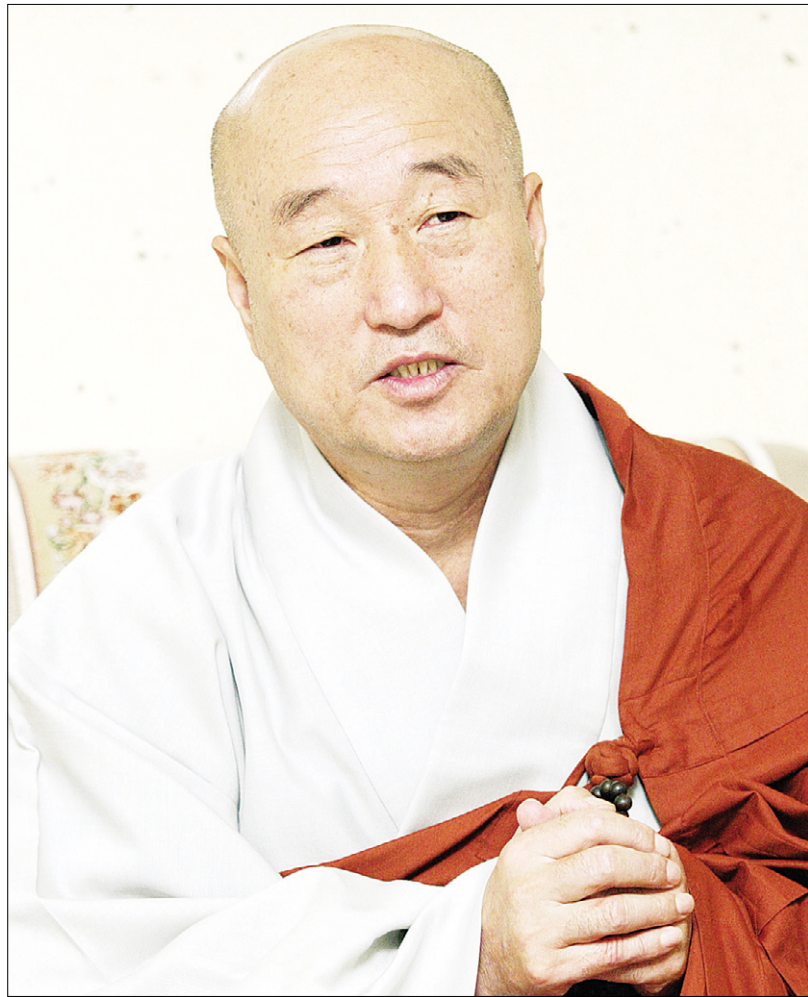
스님은 “교구장으로 군포교 활동에 임하면서 ‘단 1명의 불자장병이 있어도 간다’는 각오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님은 한 달 평균 4회 이상씩 총 139회에 달하는 수계 법회를 직접 개최했다. ‘자비의선물’ 등 봉축행사와 연말 장병위로 활동을 정례화했고, 108산사순례와 함께 초코파이 9만3294박스를 전달하는 등 장병 물품지원에 나섰다. 이에 장병수계지는 2006년 3만4001명에서 2007년 4만619명, 2008년 8만771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군종교구는 “2009년 목표지인 10만 명 수계 달성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14개소 신축 및 46개소 중창불사 등 군사할 현대화 뿐만 아니라, 준부사관 불자회 및 사관학교 졸업법회 지원, 초급 장교 불자확보에 주력했다. 장군 115명 및 영관 불자 449명의 데이터화를 통한 관리, 장성 신도회인 국군불교총신도회와의 연계 강화 등 이른바 ‘잇물 포교’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스님은 단인종장 후원자 3163명을 비롯해 안국선원과 대한불교진흥원, 한마음선원 등 각계 정기 포교후원금 15억1300여 만원과 선정사 영진 스님의 10억 지정기탁 등 총 22억 6700여 만원의 후원금을 이끌었다. 73억1200여 만원에 달하는 1기 군종교구 총수입은 일면 스님의 역량 발휘이기도 하지만 2기 군종교구에게 또 다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독신의 의무 해야 할 일지만 심도 깊은 논의 아쉬워

개정된 종헌 9조 2항(군승 독신 의무화)으로 인해 교계에서는 기존 군법사 이탈과 장기 복무 기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위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현재도 있는 고위지휘관 열세현상(기독교 대비 영관급 9:1)이 심화돼 각 부대 종교방침 등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3년간 미달을 면한 군승수급의 추이도 큰 관심사다. 일면 스님은 이에 대해 “조계종 정체성을 위해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군승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다. 원력을 지닌 스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30년 전 어른스님들께서 군승 훈인을 허락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며 “군포교 관련 단체들과 세미나 등 심도 깊은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질적·양적 해법을 찾기 위해 초기 교구장으로 모색한 해답이 비구니 교단과 타종단의 군포교 진출이었다. 스님은 “비구니 군승 파승 문제는 국방부도 큰 관심을 보였고, 전국비구니회에서도 어느 정도 구체화됐으나,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비구니회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타종단 군승 파승문제 역시 교구장 뜻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종단에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계룡대 교육관 법당 등 불사 퇴임 전 착공

국군은 국방개혁 2020계획을 통해 현재 각 사단 훈련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을 2013년부터 논산 육군훈련소로 집중할 계획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는 2000명 수용 규모로 개신교, 가톨릭의 5000명 규모에 비해 규모에서도, 시설에서도 열악하다. 개신교에서 군장병 연간 25만 세례로 전 국민의 75%를 복음화한다는 ‘비전2020’을 선포해 대응책 마련은 더욱 시급하다.

일면 스님은 “후임 교구장께서 잘 이어가 주시리라 생각한다. 초급장교 포교에 핵심인 계룡대 교육관 법당은 현재 토지 매입 및 설계가 진행돼 임기를 마치기 전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anmail.net

“신바람 군포교되도록 지원할 터”

2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 자광 스님

“현역 군법사들, 신바람 나는 포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차기 후보로 군법사 출신 자광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6월 10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로 자광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투표에는 교통신사고를 당한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을 제외한 19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추천 방식 논의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기권을 표명했으며, 투표결과 자광 스님은 유효 18표 중 과반수를 넘어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자광 스님(반야선원 주지)은 세삼 31세 때부터 25년이 넘게 군포교 분야에서 활동해 온 군포교 전문가로 군종감 및 군종실장 등 군포교 주요요직을 역임한 바 있다. 1995년 국방부 군종실장으로 퇴임한 이후에는 일선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등을 다니며 군포교뿐만 아니라 교정 및 경승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자광 스님은 이날 인사위 선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면 스님께서 군법사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해주셨다. 스님의 발자취를 잘 이어 더욱 빛내도록 하겠다”고 먼저 예를 갖췄다.

이어 스님은 “현역 군법사들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군법사들이 신바람 나는 포교를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계 일각에서는 군법사 출신과 일반 승려 출신 등 교구장 후보선출을 두고 갖은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각기 장단점이 있지 않겠나. 원만하게 교구를 잘 이끌어 가겠다”며 “교구장은 벼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로 있는 것”이라고 하심할 것을 다짐했다.

교구장 임명 선례에서 상임인사위원회를 거친 추천후보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임명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광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7월 25일 초대교구장 일면 스님 임기가 끝나는 대로 2기 군종교구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약력

1942년 생, 1957년 화엄사 출가.

1959년 경산 스님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63년 해인사 강원 사지와 수료, 자운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8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중비생 1기 졸업.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

1977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계율 전공 석사.

1980년 군승단장.

1990년 보국훈장 ‘삼일장’ 수상. 1992년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1993년 국방부 군종실장 취임. 군법사 정원 100여 명으로 증원.

1995년 대령 예편,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 반야선원 주석, 용인불교사임연합회 회장, 경기지방경찰청 지도법사, 안양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



천년동안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계신 은진미륵 (보물 제 218호)

미륵성지 기도영험도량

은진미륵 관촉사로 초대합니다

일천년 동안 한 곳에 서서, 수많은 중생들을 안아준 은진미륵!

은진미륵은 서기688년 조성을 시작하여 장장 38년간 불사를 진행, 서기1006년(목종 9년) 완성하였는데 찬란한 서기가 삼철일 동안 천지에 가득하여 찾아오는 사람으로 자칫거리기를 이를 만큼 북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진미륵의 백호에서 나오는 황금빛이 너무 밝아 송나라의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예배하고 “마치 훗날을 보는 것 같이 빛나는 미륵불이구나!”하고 감탄했다하여 사찰 이름이 관촉사(灌燭寺)로 명명됐다고(관촉사사적비명)은 적고 있습니다.

기축년 윤달 생전 예수재 및 성지순례 안내

생전 예수재의 내력과 원력

부처님의 대공덕주인 ‘밤비사라’ 왕은 명부를 체험한 후에 다시 깨어나 전생을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생전 예수재를 무려 59번이나 열어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양무제 역시 매년 봉행하여 인연도리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관촉사에서는 생전 예수재 및 가사 불사를 봉행코저 하오니 나와 조상 그리고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긴 생전 예수재와 가사불사를 통해 전생, 금생 인연 법문을 듣고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수행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기피 임으시길 바랍니다.

- 생전 예수재
 - 기도입재 : 2009년 6월 5일 (음, 5월 13일) / 천도재 봉행 : 매주 목요일 대웅보전 오전 10시 30분
 - 기도회향 : 2009년 7월 23일 (음, 6월 2일) / 동참금 : 예수재 1인 5만원 / 가사불사 성의껏 동참
- 성지순례
 - 일 정 : 2009년 6월 30일 (음 5월 8일) / 순례사찰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 출발장소 : 관촉사 주차장 오전 7시 / 동 참 금 : 1인 3만원 (점심 제공)
 - 입금계좌 : 우체국 310086-01-000089 / 국민은행 453201-04-164635 (예금주 : 관촉사)
- 1029일 영가 천도 12번째 회향
 - 기도일정 : 2009년 6월 7일 (음, 5월 15일)
- 2009년 수능 100일 기도 입재
 - 2009년 8월 4일 (음, 6월 14일)

* 관촉사 은진미륵 부처님께 좋은 성적 성취 발원 수능 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대중스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축원 및 기도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산 관촉사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번지 ☎ 041)736-5700~2 / 팩스 041)733-4169